

KIA 빅리그 출신 서재웅·최희섭 남다른 겨울나기

“휴식 없다…오직 훈련뿐”

서재웅 재활훈련 차 후배들과 일본행

최희섭 체중 줄이고 포항서 개인훈련

KIA 타이거즈의 ‘빅 리거’ 최희섭과 서재웅이 명예회복을 위한 담금질에 들어간다.

올 시즌 부상에 시달리며 팀의 4강 탈락을 지켜봐야 했던 한국 무대 ‘새내기’ 서재웅과 2년차 최희섭은 11월 마무리 캠프를 끝마친 뒤 어느 해 보다 바쁜 12월을 준비하고 있다.

서재웅은 연초 스프링캠프에서 왼쪽 험스트링 부상을 당한 데 이어 시즌 중 오른쪽 험스트링과 팔꿈치 통증으로 재활군을 오르내리며 올 시즌 4.08의 평균자책점으로 5승 5패를 거두는데 만족해야 했다. ‘빅 조이’ 최희섭도 스프링캠프에서 원인 모를 두통으로 2차례 중도 귀국한 뒤 시즌 내내 어깨, 허리 통증으로 고전하며 0.229의 타율로 6개의 홈런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아쉬운 2008시즌을 보내 두 선수는 ‘빅 리거’로서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시즌이 끝난 후 각각 남해와 광주에서 동료들과 함께 구슬땀을 흘렸다. 한국 프로야구에 낯설었던 두 선수는 개인훈련을 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 시즌 팀 동료들과 함께 훈련을 하면서 아쉬운 2008가을을 마무리 지었다. 올 한해 체력적인 부담 등으로 고전했던 것을 만회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휴식 대신 몸 만들기를 선택한 서재웅은 남해 캠프에 자발적으로 참여, 후배 투수들을 이끌고 체력 키우기에 주력했다. 가을 마무리 캠프가 종료된 지난 29일에는 완벽한 시즌 마무리를 위해 재활훈련 차 이범석·나지완과 함께 일본행을 선택했다.

هم스트링 부상 재활을 위한 치료기관을 찾은 서재웅은 마사지 치료 등을 받은 뒤 3일 귀국길에 오른다. 월세 없는 11월을 보낸 서재웅은 귀국 후 잠시 휴식을 취한 뒤 내년 1월 중순, 최상의 컨디션으로 스프링 캠프에 참가하기 위해 개인훈련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좌측 어깨 통증으로 남해 캠프 대신 광주에서 재활훈련을 쉬지 않았던 최희섭은 포항에서 한 해를 정리할 계획이다.

지난해 전지 훈련에 서 두통으로 완벽하게 훈련을 소화하지 못했던 최희섭은 시즌의 부진을 탈기 위해 새로운 각오로 훈련에 나서 체중 감량에도 성공, 10kg이상 체중을 줄였다.

조별히 감독에게서도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은 최희섭은 조만간 포항 종합운동장에 새 캠프를 차린다. 개인훈련을 쉬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는 최희섭은 따뜻한 포항을 찾아 내년 시즌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올 시즌 KIA 투·타의 핵으로 주목을 받았던 두 선수는 아쉬운 한 해를 뒤로하고 부산한 움직임으로 2009시즌에 대한 가능성을 높여나가고 있다. 또한 기나긴 재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투수 강철민과 유격수 홍세완 그리고 부상으로 힘든 한 해를 보낸 이현곤은 2일 자비로 필리핀 안쓰베이스볼클럽으로 개인훈련을 떠나는 등 KIA의 겨울이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구어지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백 차승
고 새삼 강조했다.
대표팀 1차 엔트리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지만 선수 선발 전권을 사령탑에게 부여한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일단 김감독을 지지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백차승 꼭 필요한 선수”

김인식 WBC 감독 소신 밝혀

미국 시민권 취득 놓고 논란

제2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출전할 1차 엔트리가 발표되자 마자 야구계 안팎이 시끄럽다.

야구인 상당수가 예상하지 못했던 백차승(샌디에이고)과 김병현(전 피츠버그)을 비롯해 선수 자신의 처지때문에 고심하고 있는 이승엽(요미우리), 박찬호(LA 디저스) 등 해외파들이 몽땅 포함됐기 때문이다.

특히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백차승의 대표팀 합류 여부다. 찬반양론이 비등한 가운데 WBC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김인식 감독은 2일 백차승을 선발한 배경에 대해 “팀 전력에 반드시 필요한 선수”라고 밝혔다. 김감독은 “단기 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수력인데 마땅한 오른손 선발투수가 없다”고 설명한 뒤 “원손은 김광현과 류현진 등이 있지만 오른 손에는 합류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박찬호 말고는 특별한 대안이 없다”고 덧붙였다.

사실 김인식 감독은 아직 백차승과 전화 연락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본인과 직접 얘기하기 위해 여러 군데 연락을 취한 상태”고 밝힌 김감독은 “대표팀을 위해서도, 백차승을 위해서도 WBC에 데려가고 싶다”고 말 했다.

부산고 시절 국내 최고 투수로 평가됐던 백차승은 박찬호의 뒤를 이어 메이저리그에서도 대성할 선수로 꼽혔지만 시애틀 매리너스에 입단하자마자 팔꿈치가 고장나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다.

정작 마운드에는 제대로 오르지도 못한 채 수술과 재활을 반복하며 오랜 세월을 보낸 백차승은 결국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내 팬들 사이에 병역의무를 기피했다는 비난 여론이 쏟아졌고 WBC 대표팀 선발마저 미뜩찮게 바라보고 있다.

김감독은 또 올시즌 소속팀이 없어 단 한 번도 실전투구를 하지 못한 김병현에 대해선 “훈련 여부를 지켜보고 최종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차피 다른 선수들도 겨울 동안에는 쉬기 때문에 내년 3월께 김병현하고 감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한 뒤 “김병현을 무조건 뽑겠다는 것이 아니라 몸상태를 체크해 보고 결정할 것”이라



백 차승
고 새삼 강조했다.
대표팀 1차 엔트리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지만 선수 선발 전권을 사령탑에게 부여한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일단 김감독을 지지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이순화 “나홀로 고교생 태극마크”

〈함평여고〉

‘무서운 신예’ 이순화(18·함평여고 3·사진)가 고등학생으로 유일하게 펜싱 여자 국가대표팀에 선발됐다.

대한펜싱협회는 2일 유망주 이순화 등을 포함한 2009년 국가대표 명단을 확정했다.

베이징장을 립пись에 나섰던 선수들을 주축으로 국가대표팀을 선발한 펜싱협회는 젊은 유망주급 선수를 대거 발탁, 2012년 런던올림픽을 대비한 장기적인 포석을 놓았다.

해남 산이중학교 1학년때 펜싱에 입문한 이순화는 중학교 3학년 때 전국대회 개인전을 훙쓸면서 두각을 나타냈다.

특히 스스로 운동일지를 쓰면서 개인훈련을 할 정도로 펜싱에 몰입했던 이순화는 함평여고에 진학해 유영철(53)감독과 한경아(여·41)코치를 만나 기량이 절정에 올라 2학년 때부터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활약하고 있다.

1m70cm에 원손잡이인데다 팔과 다리가

펜싱 남녀 국가대표 확정

오헤미·모효정·김미정 등

광주·전남 소속 6명 포함



첨), 서혜리 (20·안산시청) 등이 가세한 여자 사브르는 역대 최고로 기대를 모은다.

여자 예페의 김미정·최은숙 (이상 광주 서

구청)도 합류했다.

지도자 가운데서는 베이징장을 립пись에 남현희(27·서울시청)와 정길숙(28·강원도청)이 이끄는 여자 플뢰레에서는 기대주 흥서인(20·한체대)과 오헤미(20·전남도청) 등이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달았고 남자 플뢰레의 하태규(19·한체대), 허준(20·대구도청) 등도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활약하고 있다.

남자 사브르 구본길(19·동의대)도 유망주로 꼽히고 모효정(25·정은희(이상 전남도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최저 학력제 도입…운동부 합숙소 점차 폐지”

黨政 ‘학생 운동선수 학력 높이기’

정부와 한나라당은 2일 학생 운동선수의 학력을 높이기 위해 최저학력제를 도입하고 학생 선수의 인권침해 개선과 학교 운동부 합숙소 점진적 폐지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국가인권위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관계자들과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나경원 제6경조위원장이 전했다.

당정은 학생선수의 잊은 대회 출전 등 수업결손에 따른 성적 저하 및 운동 중도포기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성적에 도달한 경우에 경기 출전 및 선수 등록을 허용하는 최저 학력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선수들에 대한 폭력이 합숙소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학생선수 합숙소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되, 통학이 어려운 도서지역이나 농어촌 지역에서는 선수들을 위한 기숙사를 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체육지도자의 인권교육 및 자질향상을 위해 지도자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밖에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이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신분노출 우려로 신고가 어려운 점을 감안, 상담전문가와 교육전문가들이 운동부와 합숙소를 직접 방문하고 인터넷을 활용한 상담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연합뉴스

상무 3년 만에 우승

농구대잔치 남자부



2일 오후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KB국민은행 2008농구대잔치’ 남자부 결승전 상무·건국대의 경기에서 상무 양동근(오른쪽)이 슛을 쏘고 있다. 상무가 71-65로 승리해 우승했다.

/연합뉴스

히어로즈 구단 자금난 심각

자본금 잠식…세금도 못내

프로야구 제8구단 히어로즈가 세금을 내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히어로즈의 법정소송 서류에 따르면 이 구단은 자본금이 잠식됐고,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 2억원도 내지 못했다. 히어로즈는 최근 우리담배(주)를 상대로 후원금 24억원을 달라는 거액분쟁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히어로즈가 소장을 통해 스스로 밝힌 운영 실태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히어로즈는 신청서에서 ‘올해 1~9월에 선수 연봉과 수당, 훈련비 등 71억여원을 썼지만 우리담배가 후원금을 주지 않는 바람에 긴급하게 주주들의 돈을 빌려서 썼다’고 주장했다. 주주인 이장석 대표와 남궁종환 이사가 수시로 개인 돈수억원을 구단에 빌려줬다는 것이다.

돈을 빌려쓰다 보니까 이자 등 손실이 1~9월 사이에 7억7천여만원이나 생겼고, 자본금까지 잠식된 상태라고 한다. 구단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급식비 등 선수 훈련비, 의료비, 운동기비 보수, 구입비, 사무실 관리비 등 야구단 운영경비 중 상당액이 연체돼있다.

/연합뉴스